2026학년도 의대 MMI: 무엇을, 어떻게?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최종 관 문이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는 다름 아닌 MMI면접이다. 과거 의대 입 시가 단순 지식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 쳤다면, 이제 MMI는 미래 의료인에게 필 수적인 인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 는 본질적인 평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MMI의 본질: 단순 지식 너머의 8가지 핵심 역량

'Multiple Mini-Interview'는짧은면 접 스테이션들을 순환하며 지원자의 다양 한 면모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독특한 형식 이다. 단순히 의학 지식을 묻기보다 의사 로서 갖춰야 할 8가지의 핵심 역량을 심층 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 해진 '모범 답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MMI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 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자의 윤리적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 판단 및 윤리 적 딜레마'문제이다. 가령, 응급실 의사로 서 20대 남성과 70대 노인 중 한 명에게만

즉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 할 것인지 묻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러 한 질문에 마주했을 때, 수험생은 섣불리 정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판단 근거를 논리 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생명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인 자율성, 선행, 악행 금지, 정의를 기반으로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으 로서의 깊은 고뇌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태도가 성숙한 답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STAR 기법(상황-과제-행동-결과)을 활용해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 로 서술하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의사의 소명 의식이나 환자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MMI 준비 전략 및 실전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스터디 그룹을 통한 모의 면접이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며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좋 다. 또한,의료 윤리 및 시사 칼럼을 꾸준히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관련 서적 과 신문 칼럼을 꾸준히 읽으며 의료 현안 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면접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자신만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준비 과정이다. STAR 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리더십 경험 등)이 의료인의 자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미리 정리해 둬야 한 다. 단순한 나열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무 엇을 깨닫고 성장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 는 것이 중요하다.

◆MMI 합격의 열쇠 : 진정성과 자기 성 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면접 당일에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더라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거나 질문 내용을 다시 확인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오히려 신중함을 보여줄 수 있다.

MMI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핵 심은 바로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과 '논 리적인 답변 구성'이다. 이 과정은 예비 의 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자질을 내면 화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MMI 준비는 합 격을 위한 관문을 넘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의료인으로 성장할 것인지 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는 소중한 경 험이 될 것이다. /JBS 진로진학연구소장

오늘의 운세 10월 17일 (음 8월 26일)



36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48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 는 기분. 60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72년생 긴 밤이 지나면 이른 아침이 오기 마련. 84년생 어쩌면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필요.



37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9년생 내일의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61년생 윗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다시 살펴라. 73년생 문서는 변하여 비 옥이 되다. **8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진행



38년생 나의 인생 내 탓이니 잔소리 마라, 50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미 루라. 62년생 낙심할 것은 없다.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74년생 거짓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86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조금씩.



로 돌아가고 싶다. 63년생 청약을 오늘이라도 신청하도록. 75년생 약자를 표방하는 감언이설이 나를 슬프게 하는데. 87년생 오후 매출이 오른다.

39년생 조상님 산소를 돌보지 못하는 심정. 51년생 괴테는 아니지만 친환경 자연으



지부지 사랑도 마찬가지. 64년생 재산증여는 신중하게. 76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 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 88년생 아픈데 다시 다른 병이 발병.

40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52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



41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말조심. 53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참석해야 기운 이 들어온다. 65년생 술을 넘치도록 마시지 말자. 77년생 오래 사는 타향이 이제는 고향집 같은데. 89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시키자.



42년생 신세를 진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오는 날. 54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 작하자. 66년생 들어가자마자 불평만. 78년생 고서를 보고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 아 뒷날 미래를 경계하라. 90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



4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남은 날 발전도 없다. **55년생** 사랑 타령은 시 간 낭비로 결국 우울감만. 67년생 언제나 오늘만 같았으면. 79년생 부자가 되려면 교 만을 멀리해야. 91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44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가 온다. 56년생 가정의 화목이 언제나 고맙다. 68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80년생 복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 어 재앙이 생김. 92년생 돈 관리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45년생 천재라도 노력 없이는 단발이다. 57년생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그물을 먼저 준비. 69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마음에. 81년생 수없이 부도가 났으나 조 상님 덕에 회생된다. 93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46년생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5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 온다. 70년생 과정을 중시해야 결과도 얻는다. 82년생 먼저 양보해야 하는데 늘 남이 하기를 바라니. 94년생 신용을 지키는데 상대가 미흡하면 중지를



47년생 나이가 있어도 일단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도록. 59년생 먹기보다는 운동이 필요할 것. 71년생 제 분수도 모르고 경거망동에 주의. 83년생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은 주의를 요한다. 95년생 무슨 투자인가 재물을 얻을 수 없다.

김상회의 四季

아, 옛날이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 해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는 민원 대란이 불가 피했다. 생각보다 복구가 늦어져 신원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는 물론 우편 보내는 일마저 보류되어야 했는데, 디지털 환경이 당연해진 지금 아날로그적 상황에 대한민국이 난리이다.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된 민 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가 며칠씩 올 스톱 된 것이다. 추석 한과며 과일 등 인터넷 온라인으로 명절 선물을 신청하여 보내고 받는 일들이 차질이 생겼고, 장기 보관이 어려운 신선한 식품들을 쟁여 놓는 상황이 되어 자영업자들이 울상이다. 물질적 시간적 손해도 그러 하지만, 평소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자만이 아니었던가 싶다.

문명의 편리함 이면에는 그보다 더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전기가 갑자가 끊기거나 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전 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다. 냉장고의 경우 단전사태 가 발생하면 냉동고에 있던 육류 등 음식물이 녹아내리며. 병원 같은 곳은 산소호흡기나 수술기기 등의 작동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바로 환 자들의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당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AI 시대 의 개막은 이런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킨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환 경은 인류 존립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이를 보면서 과거 문화의 가장 큰 유산은 주역(周易)이 아닐까 싶다. 우주 생성 그 변화의 이치와 원리를 설명하기에 역시 소우주인 인간 삶에의 적용은 실질적이기 때 문이다. 지구를 터전으로 하는 이상, 옛날이여! 오지 않은 나의 미래를 진단해보는 나침판은 주역만 한 것이 없다.

metr# जिह्हा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06 2002년5월28일	제57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	111 2017년3월09일	제1876호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이는 부동산 규제



기지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었다. 최근 발표 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이라는 명분 아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 거래허가구역확대를축으로삼았다.시장 의 시선은 냉랭하다. '집값 안정'의 구호가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거래 를 제한하는 '이중 규제'의 형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은 급격히 줄 어든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 매 수 과정마다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 정심사 지연이나 조건부 승인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 투기 수 요는 차단되겠지만, 함께 묶이는 것은 결 국 실수요자다.

이번에 경기 12개 지역이 추가로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부담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매매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허 가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거래는 위축되 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역세권 개발 지역처럼 생 활 기반이 밀집한 곳까지 포괄하면서 '투 기억제'라는명분이 '시장마비'로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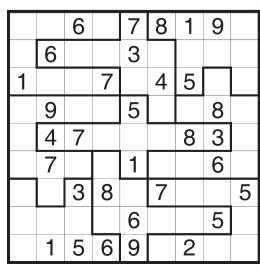
관건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지금은 정 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나 정권 이 바뀌면 언제든 방향은 달라진다. 2020 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규제가 풀리자 누 적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집값 급등 의 불씨가 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억눌 린 수요는 언젠가 더 큰 부작용으로 되돌 아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하다. 인위적인 억 제책은단기적으로는통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반 등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 뢰 회복이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 을 원한다면. 서민이 대출 한도 때문에 집 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복원해야

lhi@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쓰다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단에 1부터 9의 숫 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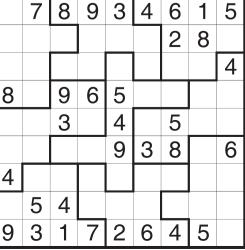














문제출제:손호성

						ŀ				
ω	6	ŀ	8	۷	Þ	9	G	7		
8	9	Þ	9	2	Z	ŀ	ε	6		
7	6	L	8	L	3	17	9	9		
3	L	6	9	9	L	2	8	Þ		
9	abla	8	ε	6	7	<u>ک</u>	ŀ	G		
L	9	9	6	17	8	ε	7	L		
7	7	3	L	G	9	6	1	8		
Þ	ε	Z	2	8	G	9	6	ŀ		
6	8	2	L	ŀ	abla	g	9	ε		
_										

9 1 9 7 8 6 8 4 2

1 8 8 9 7 6 L 7 9 2 8 8 7 9 1 7 6 9

9 2 9 7 8 7 8 8 1